

방공포대 이전 급물살... 송신탑·신양파크는 요원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추진로드맵 국립공원 지정 10년 무등산 생태 변화

2-9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정 전	멸종위기종 10종 등 2300여 종
4-9월 상시개방 협의서 체결	현재	멸종위기종 29종 등 4100여 종
3-4월 공원계획변경·군작전성검토		천연기념물 9종→11종
2-4월 탐방로 설치 실시설계	면적	도립공원 당시 30.23km ² →75.425km ²
5-9월 탐방로 설치 공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후속조치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구진흥원(가칭) 2025년 개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센터 2025년 말 완공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이 개방된 지난 4일 전국에서 온 등산객들이 서석대에서 지왕봉으로 오르고 있다.

김양배 기자

▶ 또 담양 추월산 구상암·담양 하천습지·금성산성 화산암 군·담양 가마골 등 지질명소 4곳 추가 발굴 등 최초 인증 시 권고사항이었던 '지질유산과 자연 및 문화유산 사이의 연계 강화'를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이번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은 전 세계 15곳 중 5곳이 최종 인증에 실패할 정도로 유네스코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재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재인증 과정에서 제안한 권고사항 4가지(유네스코 브랜드 공동 홍보, 방문객 센터와 안내센터 추가 설치, 지질명소와 관련된 지역 정보(설화·문화 등) 활용, 기후변화·자연재해·지속가능개발 목표 등을 담은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무등산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따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구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센터 건립 등에 나선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는 무등산권 세계지질

공원의 지속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통합본부 구축을 위해 가칭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구진흥원'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실 4팀 18명이 근무하며 연구·보존, 기획·전시, 문화관광·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통합본부는 지난 2018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상생방안으로 오는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아시아 플랫폼센터는 광주 북구 충효동 일원에 총 6800㎡ 부지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가 들어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327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은 물론 주상절리대 등 천혜의 경관을 품은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합리적 관리와 복원을 통해 미래 100년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 보존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시민의 품' 무등산, 남은 과제

방공포대 이전지 선정 선결돼야 방송사 송신탑 이전 요구도 커져 신양파크호텔 활용방안 언제쯤 원호사 이주주민과 보상 갈등도

올해 9월 상시개방과 함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온전한 무등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등산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선 산적된 현안 과제들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방공포대 이전을 비롯해 방송사 송신탑, 신양파크호텔 활용방안 모색, 원호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방공포대다. 방공포대는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했다. 방공포대가 점유한 정상부 면적은 10만8147㎡, 포장재 설치 면적은 1만8864㎡로 포대 및 초소, 헬기장, 주차장, 건물 15개와 컨테이너 20여 개가 설치돼 있다.

방공포대는 1961년부터 3년마다 광주시로 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무료로 산 정상에 이용중이다. 일반인은 정상부에서 900m 떨어진 곳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했다.

1995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처음으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던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광주시와 국방부가 이전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무등산 정상개방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7년 만에 방공포대 이전 논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송 의원과 광주시,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이전계획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주최로 열린 '무등산 정상개방 시민토론회'에서는 군부대 이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군부대 이전 로드맵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2025년까지 설계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방공포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상복원 작업은 2028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공포대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군공항 관내 광산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전투기 소음피해가 극심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해온 상황에서 방공포대 시설까지 집약하면 공항 이전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송사 송신탑 이전도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케이비시(KBC) 광주방송 등 방송 3사와 케이티(KT)가 5866㎡ 면적을 점유해 송신탑 6개, 관련 건물 8동을 두고 있다. 정상에 있는 송신탑 6개 중 일부를 없애거나 2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광주시에서 제시됐지만 이전 비용 등 문제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무등산 경관보호와 난개발 제한을 위해 매입한 신양파크호텔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광주시는 매입 이후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 호텔과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지난해 7월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이후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돼 백지화 됐다. 이후 협의회에서 '시민공원', '생태호텔', '청년 교육·연구공간' 등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호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정비사업 역시 이주지역의 분양가 문제를 두고 상인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다. 광주시는 2002년부터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증심사 인근 식당 등을 모두 철거, 원호사 집단시설지구 식당들도 함께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원호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퇴거까지 연 내 매듭짓겠다는 목표로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은 마무리 됐으나 이주지역 분양가를 두고 상인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이주할 지역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되면 상업공간으로도 분류돼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공원으로 규정했을때와 상업지구로 규정했을때 보상규모는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